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15 a.m Westminster Hall * <u>Please stand</u>
Prelude	Organist
Praise & Worship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123:1-2	Presider
Prayer	Elder Shin Yong Shik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3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17:5-10	Preside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Living as Jesus is Lord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Song 634(70)	Together
*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Blessing	Congregation
* Hymn 268(202)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Living as Jesus is Lord

Luke 17:5-10

Summary of the sermon

When the disciples asked to increase their faith, Jesus showed them the true picture of what it means to live with faith. The story Jesus tells reveals faith to be a 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 one in which its existence is shaped by duty and responsibility, and one which leads us to be free of our selfish selves to live in the awe and reverence of God alone.

The foundation of our faith exists in a 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 God is the master and we are the servant. This means actually acting and living in the truth that Jesus is Lord in your life. In this light, our faith exists for our master. And so, our faith will never make sense in the way we want it too, and we will always be left in a hard place to be in our heart and mind of never fully knowing why and waiting without any sign or proof.

The existence of faith, its growth, it's strength, is directly shaped by duty and responsibility. The servant is to serve the master, with the servants own interest coming last. The burden of duty then is our selfish sinful hearts that try to rule. For when we give ourselves fully to our master we find out the absolute truth of Christ's words, "My burden is light."

Only when we have the truth known about ourselves do we see the glory and goodness of the master. When God becomes great in our lives in witness and power, we fully see ourselves as completely unworthy of His blessing, goodness, peace, and joy in our lives, and we are left in constant awe and reverence.

Founded on God as our total and complete master, and our daily choice to serve in the seemingly hardship of duty as our sinful hearts proclaim, we must do all that we are supposed to do. Only then will our faith be increased to fully live, witness, and experience the miracle of God on a moment to moment basis.

Announcement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Our Discipleship I & II continues. Discipleship I- 1:00-2:00 Discipleship II- 2:00-3:30
-Please pray for our Discipleship I team who is serving the Gu Ryong Maeul area this Dec.22nd. We are accepting offerings for this event and blankets and jackets.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minster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Ⅲ, Ⅳ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경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현

선 교 사

강아름

주하나

이사라

권요셉

조에스터

김모세

이한나

(동아시아)

전광혜

(서아시아)

이은준

강해정

양재성

이현주

(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

김미성

(방글라데시)

이재율

박병진

전호진

(캄보디아)

조범연

김희정

우상식

김정옥

(인도)

정상진

홍성임

(팔라우)

서광중

이성일

(인도네시아)

손신일

민매라

(체코)

이재훈

박재연

(마다가스카르)

김용진

황경혜

(말라위)

김영호

서향정

(러시아)

김인사

현혜옥

(아르헨티나)

홍남기

김인규

(우크라이나)

허창범

현미순

(일본)

김평강

최사라

(동남아시아)

김낙형

오정녀

(케냐)

김태식

윤영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군선교)

김종일

백순미

(터키노동자)

이선희

(영원선교)

Thaung Neigh Mang

Cin Swan Mung

Ko Tin

Kha Ma

May Kya

Ngiang Hi

Samuel Kei Sum

(미얀마)

제22권 제49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2년 12월 2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복의 근원을 찬송하라”

(Praise the Fountain of Every Blessing)

■ 창 14:17-24

살렘 왕 벨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 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개신장군으로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살렘 왕 벨기세덱,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세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들을 하나씩 살펴 보면서 이 아름다운 주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렘 왕은 피곤한 우리들을 영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 14:18) 살렘 왕 벨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 아브람은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조가 툇과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람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이런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충만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살렘 왕의 “떡과 포도주”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시간도 있고, 실패한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탈진과도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의와 평강의 왕께서는 우리는 위로와 격려로 오늘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삶과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중 나와 계신 것입니다.

2. 살렘 왕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19절 짧은 한 절에 우리의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는 행위를 두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했고” 또한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 해 달라 “고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맛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인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십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귀한 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니기 때문입니다. 150편이나 넘는 방대한 사면의 말씀은 “복 있는 자는”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옥같은 사상보훈의 말씀도 “복 있는 자는 삼령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3. 살렘 왕은 우리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하러 오셨습니다.

(창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벨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군사 전략을 짜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움 힘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대적들로 하여금 힘없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아브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을 보내고 주수감사주일을 맞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복의 근원인신이며, 우리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우리들이 얻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갈기에 장미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풍성한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맺는 말

아브람을 찾아오신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복을 기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승리와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피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정수길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오세광 목사	김광신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행 2:1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부… 다 합 께 115(구주강림 1)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93(93)…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15: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 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Sermon …	"두려움이 없는 비전의 인생" … 박노철 목사 (Life of Vision Without Fear)

- * 찬 송 Hymn …… 405(458)… 다 합 께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유 년 부	박재원	권보화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여정	양경실	윤중현1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대왕	김정희16	박수강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부장 윤석원 집사, 지휘 송재월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해란				
수요 II 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묵 도	다 합 께
성 시	시 20:7…… 인 도 자
찬 송	423(213) …… 다 합 께
기 도	서훈식 집사
찬 송	94(102) …… 다 합 께
성 경	고전 1:26-31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자랑이 금지된 자들"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149(147) ……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II 부 오후 7시

기 도	I 부: 조숙자 권사, II 부: 장명순 권사
성 경	마 9:1-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해란김양언
설 교 …… 박노철·오세광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정수길 목사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남녀 전도회 회장단 모임 / 2일(주) 오후3시30분 607호
- 군복무자 및 군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 2일(주) 오후3시30분 902호
- 이미용 봉사(봉천동 노인복지관) / 4일(화) 오전9시 101호
- 도르가 전도회 월례회 / 4일(화) 오전10시30분 706호
- 권사회 총회 / 5일(수) 오후1시 501호
- 스데반회 총회 / 6일(목) 오후7시 101호
- 15교구 연합다락방 / 7일(금) 오전11시 602호
- 전 도 / 2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래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공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5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마리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제1, 제2스데반회(한티공원)

6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라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7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8일(토) 오후 3 5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바울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학습세례식 신청 마감 / 12월 학습 세례식이 12월 19일(수요일) 12부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12월 9일(주일)
문답총정리는 12월 9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16일(주일) 오후 3시 30분 602호 에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 → 세례준비반
-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24개월 이하 영아를 맡춤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개월-5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6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예배드립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옥분	14-14	리브가	희락팀	차혜승	3교구	루디아	백현주	손민주	3교구	고등부	사랑팀/리승현
설순성	14-13	한나	희락팀	김영주	9교구	창년1부	강산행	최현주	14-8	중등부	이상은
강민순	1교구	한나	수요노방팀	이자형	11-9	대학부	본인	천보름	14-8	중등부	이상은
이유진	4교구	에스터	목요기도팀	김지은	14-14	대학부	본인	조하연	1교구	초등부	사랑팀
안오곤	6교구	바울	자비팀/주동제	민경호	16교구	대학부	사랑팀/한정민	조영욱	1교구	유년부	사랑팀
박만옥	15교구	보비	박혜정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이현(정형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 결 혼

- 채규재 군(채영목 한정자 씨의 장남)과 안혜민 양(11교구 안흥희 집사, 전화진 권사의 장녀) / 7일(금) 오후 7시 헤리츠컨벤션 2층 야그니스 홀(02-536-4000)
- 김관섭 군(김영복 집사, 김정애 권사의 장남)과 하혜심 양(3교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의 차녀) / 8일(토) 오후 1시 서울교회

◆ 장 례

- 故 정정순 성도(9교구 한중우 집사 모친, 황노전 권사 시모) / 11월26일(월) 별세, 28일(수) 천국환송예배

위선의 위기

양의 가족을 쓴 이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거나 회칠한 무덤처럼 외부를 미려하게 장식하여 눈가림이나 하는 속임수들이 세상에는 허다하다. 좋은 이름을 갖고 이름 값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높고 화려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릿값도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높은 이름과 자리에서 물러서든지 아니면 위선과 거짓의 탈을 속히 벗어 던지고 진리 앞에 솔직하고 사실 앞에 겸손히 자기 반성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책임을 다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위선은 시간이 지나면 폭로되게 되어 있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의 도리라면 이 시대를 미혹하고 이 백성을 속이고 있는 모든 악령들은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거짓된 자는 망하고 진리에 대해 진실한 사람은 득세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